

2020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1차 심사를 마치고 지난 2020년 5월 20일 줌(zoom)을 이용한 최종 회의를 통해 2020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이호욱의 『경남 촌락 가옥의 유형과 분포에 관한 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총 7명의 심사위원은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로 분야를 나누어 1차 심사를 하였으며, 1차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지리학의 오랜 주제였지만 최근 들어 연구가 많지 않았던 가옥 형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남 175개 지역 촌락을 연구대상으로 설계하였고,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 정제된 형태로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가 과거의 전통 가옥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본 논문은 현대 가옥에 적용할 수 있는 촌락 가옥의 유형화 작업과 분포의 특성에 대해 지붕형태, 지붕재료, 외벽재료 등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졌던 촌락이나 가옥연구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건축의 전문화와 현대화로 지리적 변이가 없거나 적을 거라는 직관과 달리 유형별 촌락 가옥의 지리적 분포 패턴이 뚜렷하고 이에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어 적지 않은 학문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경남 지역 현대 가옥의 유형과 분포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성적 분석과 동시에 다변량 통계 분석 기법인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적용한 혼합연구를 실행하여, 촌락 가옥의 유형과 분포에 대한 특성을 계량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옥 연구는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부족 등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주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 가옥 분야를 지리학 연구의 장으로 끌고 왔다는 점 또한 이 논문이 갖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하여 심사위원회는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호욱의 논문 『경남 촌락 가옥의 유형과 분포에 관한 연구』를 제16회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선정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